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단일 사례연구

유진희¹, 김민경^{2*}

¹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상담·심리치료 박사수로, ²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A Single Case Study of an Adolescent with a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in Preparation for Independence after Discharge from a Childcare Institution

Jin-Hee Yu¹, Min-Kyeong Kim^{2*}

¹Doctor's Degree, Graduate School of Children's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Namseoul University,

²Professor,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심리치료 상담과정과 자립준비 생활경험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였다. 사례연구의 범주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툴고 힘들었지만 추억이 있는 시설생활” “아프고 성장하고 쓸쓸한 나의 사춘기” “의지할 수 없는 존재” “기대감과 두려움의 자립과정” 등의 주제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퇴소와 자립준비과정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심리치료적 개입으로 변화되고 극복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에 적합한 자립준비와 직업탐색에 치료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아동양육시설 퇴소, 경증지적장애 청소년, 자립준비, 심리치료, 단일 사례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young people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ies with counseling and self-supporting life experiences. The topic of the counseling contents could be categorized as follows: “institutional life was clumsy and hard, but it was also full of memories,” “my adolescent was aching, growing, and lonesome,” “an irresistible being,” “independence process is filled with anxiety, excitement.”

In his process of going independent, the subject showed a strong will for the preparation for independence where he gets through the unfavorable situation surrounding the arduous and lonely independent process. This result proves the effectiveness of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based on the coping skills that meet the needs of the social situation for the adolescents who are discharged from institutions in their independence preparation and job search.

Key Words : Discharge from childcare institution, Adolescent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Preparation for independence, Psychotherapy, Single case study

*Corresponding Author : Min-Kyeong Kim(mkm35@nsu.ac.kr)

Received February 14, 2020

Accepted May 20, 2020

Revised April 21, 2020

Published May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심리적 증상 완화를 위하여 실시했던 상담과정에서 개인적인 성장과 치유과정의 상담사례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퇴소를 앞둔 취약 청소년이 퇴소와 자립과정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관심을 받아드리고 진로를 결정하고 자립할 수 있었던 심리·정서적 변화과정들이 상담사례분석의 연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으로 전환된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보호에서 벗어나 퇴소와 함께 시설에서 자립을 하게 된다[1]. 또한 해마다 보고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 청소년은 매년 약2천명이고, 이들은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만18세가 되어 법적인 보호 종결로 인해 자립능력과 상관없이 스스로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2]. 그리고 퇴소청소년들은 시설을 나와 새로운 환경적응과 인간관계, 성인의 사회에 적응해야 하고, 생계를 위한 직업을 선택하여 성인기로 전환하기 위한 발달적 과업도 동시에 성취해야만 한다[2]. 그러나 현재 아동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미 시설입소 과정에서 부모 및 가족과의 분리라는 외상 사건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시설 입소 이전의 학대, 이혼, 경제적 빈곤, 유기, 가정해체 등 다양한 경로에서 정서적 학대와 함께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3].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심리·정서·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점차 성인기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3].

그렇다면 지적장애는 어떠한 특징이 있으며 시설에서 아동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또는 developmental disability)라고 하면 성장기에 지능저하 및 적응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여러 상태를 말한다[4]. 이러한 지적장애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뇌장애로써 생물학적으로 출생 전, 출생 시, 출생 후에 발생한다고 본다[4]. 또한 가벼운 진행성 장애의 경우는 아동기 초기에, 주로 빈곤으로 인한 경제·문화적 결핍이 그 원인일 수 있다[4]. 그리고 경증지적장애 아동의 경우 지능지수가 50이상-70이하로 대부분의 지적장애 아동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5]. 경증지적장애는 특수훈련을 하면 학문을 배우고 익힐 수 있고, 직업을 가질 만큼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

기 때문에 교육이 가능한 대상이라고 본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적장애아로 판단된 아동 가운데 약 90%는 경증 지적장애라고 보는데, 경증지적장애 범위에 속하는 많은 아동들이 교실환경에 참여하여 배울 수 있는 정도가 되지만, 사회·인지·정서적 발달에 어려움을 주는 무력감과 욕구좌절, 애정욕구에는 보다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6]. 그리고 지적장애아동들은 그들의 지적, 신체적 및 사회적 손상과 관련하여 종종 자신의 인생을 통제하지 못하고 과잉행동과 공격적인 모습이 보여 지기도 한다. 그래서 지적장애아동의 10%~40%가 유의미한 정서적인 불안감과 행동적 문제를 나타낸다고 한다[6].

그러므로 지적장애 시설아동들의 경우 그들이 갖고 있는 발달의 제한성과 시설환경의 특징적인 생활환경 및 양육시설의 통제된 환경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집단적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시설의 지적장애 아동들은 심리적 어려움과 문제화된 행동들이 일반 가정 청소년들 보다 취약하고 더 어려울 수 있다[6]. 따라서 지적장애 청소년은 선천적인 발달의 차이와 후천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달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언어적으로 각 영역의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적장애의 특성 때문에 더 어려운 성장과정임을 알 수 있다[7]. 또한 지적장애 청소년은 자기통제나 자율심이 약하고 자기주장의 수용적인 태도에 낮설어하고 자신의 잦은 실패경험의 관계형성으로 인하여 사회성발달이 늦어 사회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정신이 희박하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 타인에 대한 조망수용능력이 낮아서 또래 형성과 관계형성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8].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일반 청소년으로부터 정서적인 소외감과 거부감을 당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감과 집단 활동을 회피하게 되는 등 비정상적인 대인관계와 공격성을 보이게 되는데[8], 이러한 상황에서의 거부감과 회피는 실패에 대한 예상을 하게 만들며 자신의 능력에 상관없이 항상 부정적이라고 믿는 학습된 무기력과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게 한다[7].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정은과 전종설[9]은 퇴소 청소년의 초기 자립 경험을 퇴소 전 자립준비와 퇴소 후 자립지원의 두 이슈로 나누어 자립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자립기술을 배우려는 자립의지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보고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10, 11]과 마찬가지로 퇴소 청소년의 자립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주거 불안과 열악한 경제 상황, 미해결된 원 가족관계, 외로움이라는 것과

부족한 자립지원과 퇴소 후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한편 [12]은 경제·사회·정서·문화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유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생활방식을 자립이라고 설명하면서, 자립에는 경제적인 의미와 정신적인 개념이 함께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2]. 미국의 DHSS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에서는 자립생활기술영역을 일상생활기술, 건강관리기술, 주택관리기술, 교육, 직업훈련기술, 진로기술, 돈 관리기술 등으로 나누었다[13]. 따라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할 때, 자립지원 대상자는 1,041명이며 원 가족(72%)이 있더라도 부모와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에서 퇴소 청소년들은 대부분 1인 가구로 생활할 수밖에 없으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1].

이에 따라 정부는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의 문제를 인식하고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DA)인 디딤 씨앗 통장 사업을 도입하여 시설 청소년의 퇴소 준비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교육을 통한 자산 및 자기 관리 능력을 기르도록 하였으며,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립지원전담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퇴소 전 자립지원 프로그램 실시와 심리·정서발달 사업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퇴소 후 5년 이내의 퇴소 청소년의 사례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생활비, 주거, 건강, 학업, 직업훈련 및 창업, 상담, 법률 지원과 각종 자립 정보 제공 등의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4].

다음으로는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생활에 대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살펴 본 선행연구가 있다. [15]은 양육시설에서 6년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한 지 5년 이상 지난 퇴소 청소년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낙인과 차별의 경험과 응어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들의 삶의 의미를 제시하였다[16]. 또한, 시설 생활이 주는 낙인 중 하나로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성장했던 시간들이 커다란 상처와 흔적으로 남아 있음을 제시하였다[15]. 그리고 시설 퇴소청소년이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스러움, 여전히 아프고 또 아픈 쓰라린 상처를 운명숙과 박신애[3]의 연구에서 시설보호 청소년이 슬픔과 깊어지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함께 어쩔 수 없는 그리움으로 표현한 것과 일치하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시설퇴소 청소년이 경험하는 퇴소 후 삶 또한 시설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견디어 가면서 힘들고 외롭게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버겁고 힘겨운 시기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16].

그러므로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일반 청소년을 위

한 구체적인 자립생활과 퇴소를 제시하는 자료들은 찾아볼 수 있으나 지적장애 청소년이나 중증지적장애 청소년을 위한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17].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양육시설의 지적장애 청소년의 상담을 통한 심리·정서적 변화과정과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체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단일 사례 연구라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립준비에 대한 경험은 정서적인 치료적 개입과 장기상담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서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자립은 그 어떤 상황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로 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 취약 계층 청소년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양질의 보호서비스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삶, 퇴소한 이후의 삶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과 그들의 사후관리나 퇴소 후 직업과 생계를 위한 자립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준비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의 한계로 인해 퇴소 과정에서 일어나는 청소년의 심리적 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퇴소 청소년의 심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퇴소에 대한 주관적 정서 경험, 심리 변화 과정, 경험과 지각의 변화를 깊이 있게 탐색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과 그것들의 상호작용을 심도 깊게 탐색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 방법을 넘어선 다양한 질적 연구의 접근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17]. 본 연구자는 아동양육시설의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에 대한 임상적인 상담이 병행되면서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퇴소와 자립준비에 대한 연구를 제기하였다. 이유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임상경험과 시설아동·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있었으며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이 연구 참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담초기부터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퇴소와 자립준비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자립에 대한 준비연구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양육시설의 퇴소와 자립준비를 위한 심리·사회적이고 행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재구조화 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치료와 변화과정을 통한 사례연구에 대해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의 중요성과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방법

2.1 상담과 심리치료를 적용한 사례연구

상담과정에서의 질적 연구는 이슈나 문제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고유한 특성과 주관적 경험에 보다 집중하여 보다 심층적인 내면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으며[18], 대체로 언어적 형태로 제시되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 그리고 언어적 형태의 자료를 관통하고 있는 내포된 의미를 해석하는 시도를 질적 연구로 파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14]. 특히, 질적 연구자는 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별한 특성들이 있다[19]. 그러한 고유한 특성은 질적 연구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며 질적 연구의 좋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7].

따라서 단일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시작된다. '그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사례연구의 출발점이 되며, 그 의미를 찾는 것이다[19]. 가장 쉽게 사례를 정의하는 방식은 첫째, 사례의 구성 요인을 구분할 수 있는 특정한 경계선을 찾는 것이며 어떤 체계, 사건, 인물, 과정 등의 특징이 두드러져 그 주변과 확연히 구분될 때 사례가 된다. 둘째, 심층적 분석을 수행하고 사례 자체가 상세하고, 풍부하고, 많은 변화를 다루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때로는 어느 시간,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이고 일련의 흐름을 구성한다. 넷째, 사례연구는 맥락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이 있다[13, 20, 21]. Patton[21]은 삶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변화 과정을 자세히 탐색하기 위해서 삶의 맥락 전체에서 각 단위에 대한 심도 있고 자세한 서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준비 경험과 심리적 치료의 개입과 변화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단일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연구 참여자

본 사례의 연구 참여자는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어릴 적 부모의 이혼가정으로 인해 분리되어 만 18세 이상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학생이다. 아동은 지적경계선 수준으로 생물학적인 유전적 취약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동의 모는 정신이상과 우울증 증

세를 보여 왔고 출산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부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생계가 곤란하여 아동이 만1세 때 00시청에 의뢰되어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아동은 14개월경에 '엄마, 맘마' 등 간단한 단어를 말하였고 언어와 신체발달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친구관계 부적응과 정서적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행동이 보였다. 중학교 입학 후에도 학교생활의 또래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설에서의 일상생활에서도 동생들과의 의견충돌이 자주 있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는 학습부진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부적응과 퇴소를 앞둔 상황에서 상담센터로 상담과 심리치료가 의뢰된 아동이었다. 상담의 주호소는 또래관계 및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의사소통 향상, 학습능력 저하와 인지능력으로 부족으로 인한 자존감 회복, 긍정적인 자아형성, 심리적 지원과 자립준비에 관한 치료적인 상담이었다. 그에 따른 상담목표는 정서적 지지와 수용감 경험, 자존감 회복으로 인한 건강한 또래관계 및 사회적 관계회복, 적성을 고려한 직업탐색과 자립준비에 대한 진로 상담의 치료적 개입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아동의 심리치료사이었으며 만 16세부터 만18세 이상 심리치료와 개별상담 진행을 유지하였다. 또한 아동의 개별상담이 진행되기 전에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안내하고 법적대리인(부모)과 아동양육시설 시설장의 동의서 수령과 개인정보에 관한 안내가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이루어져 연구대상에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아동명은 이름의 이니셜을 사용하였다. 상담 기간은 2017년 7월에서 2019년 12월까지이며 총 80회기 이상 상담이 진행되었다. 상담회기는 20회기씩 나누어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학년이 올라갈 때 마다 상담을 시작하고 종결하는 과정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상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개별상담이 유지되었다. 연구 참여자 정보와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

| Gender | age | The age of one's | Reasons for entry | Duration of child care facility for child care | School | Family relations | Religion |
|--------|-----|------------------|-------------------|--|--|------------------|--------------|
| woman | 18 | 1 | parental divorce | More than 18 years | While attending a vocational high school | liaison with dad | christianity |

2.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한국웬슬러아동용지능검사4판(K-WISC-IV)으로 측정된 전체지능은 (FSIQ)은 65(1.0 %ile, 95%신뢰구간 60~74)로 '경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한다. 지표점수 전반이 경계선 수준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상생활 및 학업적인 활동에서 아동의 연령에 기대되는 모습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지능검사 중 안정성이 높은 소검사 수행수준, 지필검사 및 투사검사 수행수준을 고려할 때 학생의 지적 잠재력은 IQ75~79 정도인 '경계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만 14년부터 소아정신과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을 복용 하고 있었다.

2)HTP그림검사(House-Tree-Person test)는 심리 또는 정서를 간접적으로 투사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림은 개인의 심리적 현실 및 주관적인 경험을 드러내준다. 사람, 집, 나무와 같은 특정한 형상에 대한 그림은 개인의 성격, 지각, 태도를 반영해 준다[22, 23]. 연구 참여자는 초기접수상담 HTP집 그림검사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설을 표현했고 주인이 없으며 누구의 집인지 모르겠다고 말해주었다. 나무그림에서는 사과나무를 그렸는데 몇 살인지 생각하기 귀찮고 모르겠다라는 회피적인 모습과 정서적인 표현이나 감정표현이 미숙하였으며 과제수행의 의미가 전달되지 않았다. 또한 운동성 가족화 검사(Kinetic Family Drawing:KFD)는 가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나 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내용이 풍부하고 깊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22, 23]. 연구 참여자에게 KFD를 제안하자 사람은 그리기 싫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신경질적이고 강한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다.

3)문장완성검사(Sentence Complete Test:SCT)는 개인의 현재 심리적인 상태와 부모 관계 및 교사, 동성, 친구,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며 성격 역동에 대한 심리 진단과 적응을 판단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24]. 접수상담시 아동의 주된 정서는 짜증과 성마름으로 사소한 것에 예민하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이 접해 보지 않은 환경에 거리감을 두고 냉소적이고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인관계에서도 협소한 것으로 정서적 교류를 하는 대상은 한정적이고 심리적인 거리를 두기도 한다(나는 그다지 좋은 친구가 아니다./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직 없다./나의 소원은 사람들 좋아해 보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자신의 과거 현재의 모습에 긍정적인 경험보다 생활

이 무기력하고 포부 수준이 낮은 모습이 있었다. 내면의 욕구나 감정에 대해 탐색하고 통찰하는 경험이 부족하여 현재도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나의 좋은 점 착한 것./나의 나쁜 점 모른다./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은 모른다./ 내 꿈은 없다./내가 가장 좋아 하는 놀이는 없다).

4)모래놀이치료(Sandplay Therapy)는 정신(psyche)이 스스로를 치유하며 완전하게 성장하려는 자율적인 성향을 가진다는 Jung의 분석심리학 이론에 기반을 두고, Dora Kalf가 Jung 심리치료에 활용하기 위해 발달시킨 비언어적 치료방법이다. 모래놀이치료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이 의도하는 감정을 모형물(figure)들을 통해 투사할 수 있으며 감정표출과 자신의 무의식을 모래상자에 드러낸다[25]. 연구 참여자와 모래놀이치료 초반에는 상담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무조건적인 공감과 정서적 수용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상담이 진행되었다. 간헐적으로 모래상자를 선택하여 모래놀이치료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모래상자 초기에는 상자 안에 자신이 관심 있는 소라, 이글루, 담장, 우물, 텐트 등 관심 있는 피겨를 상자에 가득 담아 모래상자에 배열하기도 하였다. 상담중기에는 상담자와 루미큐브나 인생게임 등 보드게임을 즐겨웠으며 양초를 사용해서 불을 켜보기도 하였으며 상담자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기도 하였다. 모래놀이치료 중기에는 퇴행을 의미하는 인형놀이 소꿉놀이로 강아지나 오리, 양육을 필요로 하는 피겨선택이 있었으며 사자, 도마뱀, 고양이, 맘모스, 돼지, 양 등 좋아하는 동물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모래놀이치료 후반에는 물과 양초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모래상자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주제가 가운데로 집중되면서 아름다운 보석과 조개를 이용하여 모래상자를 만들어 주었으며 매우 만족해하고 즐거워하였다.

5) 회기별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퇴소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준비 경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이슈와 맥락을 도출해내기 위해 모든 상담과정의 언어적인 내용과 비언어적인 행동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고 작성하여 상담기록지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또한 사례별로 분석한 후에는 각 사례들에서 탐색된 논점들을 시기별로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주제를 탐색하였다. 주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지속적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즉, 20회기별 사례는 첫 번째 회기별 사례와 논의 점을 비교해 나가면서 느껴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가며 의미 있는 단어와 주제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연구자가 파악하지 못하

는 부분을 경계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함께 단일사례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와 교수님, 사회복지사, 모래놀이치료사, 임상심리치료사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연구과정에 반영하였다.

2.4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질적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개념을 엄격히 분리시키는 것이 어렵다[26].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란 연구자가 관찰하고 수집하여 얻은 자료를 통하여 내린 결과가 실재를 얼마나 잘 대변하여 주는가, 읽는 독자가 얼마나 수긍할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다[27].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의 삼각검증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첫째, 이론의 삼각검증법으로 연구자 자신이 연구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과 가정을 분명히 파악하여 연구 참여자 선정과 자료 수집 방법 및 전체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시점에서 다양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 자료의 삼각검증법이다. 셋째, 방법론의 삼각검증법인데, 이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를 위해 상담 뿐만 아니라 자료의 비전형적인 자료의 결과를 활용하여 만들어 자료들 간의 일관성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다. 넷째, 다수의 연구자가 자료수집 및 관찰과 분석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삼각검증법이다. 이는 연구자가 단독 연구하면서 빠지는 편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17].

2.5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연구의 윤리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상담 자료는 연구에만 사용할 것으로 충분히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수령하여 상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름은 이니셜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상담진행 중에는 참여자의 정서적, 인지적, 언어적 표현수준을 고려하여 마음의 안정감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심리치료실이 제공되었으며 시설 경증장애 청소년을 위한 심리치료적인 개입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28]상담 과정 중 진행된 모든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에 따라서 개인정보와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하였다. 또한 모든 사용 자료에 대해서 연구 참여자의 자세한 설명과 동의를 얻었으며 연구 종결 시 사용되었던 자료는 안전하게 파기할 것을 안내하였다.

3. 연구결과

3.1 사례 내 분석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준비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담 사례의 상황 속에서 연구 과정과 분석이 이루어졌다. 상담과정 내용에서 얻어진 자료들은 의미단위에서 개념으로 또 하위범주는 범주 순으로 분석하였다[20]. 또한 지금-여기를 중심으로 개별상담과 심리치료가 진행되었으며 자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형태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특히, 내담아동은 아동양육시설 만1세의 어린나이에 입소하여 부모 분리경험과 함께 생물학적인 취약함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립준비에 대한 의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구 참여자로 이루어진 상담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핵심적인 주제들을 찾아 다음 Table 2와 같이 범주화하였다.

Table 2. Categorization Details

| Category | Lower Category |
|--|--|
| Institutional Life was Clumsy and Hard, but it was also Full of Memories | A Strange and Clumsy Time of Childhood |
| | A Hard School Life |
| | Camping in Child Care Center is a New Experience and another Growth |
| | Precious Friends Who Laughed and cried Together |
| My Adolescent was Aching, Growing, and Lonesome | I need Time to get Ready to Say Good-bye |
| | The Lonely, Hard Times that have Grown Me up |
| | I hurt you, But I Really need you |
| | The Memory of my Brothers Hurting me |
| An Irresistible Bing | The Moments When Longing, Resentment, and Tears Became the sea |
| | A family is an irresistible being. |
| | Self-esteem that Falls under the Weight of Life |
| Independence Process is Filled with Anxiety, Excitement. | It's a Long way to go, But Let's Start Again |
| | Out of Prison, Self-reliance, a Job, a Desire to Live a Healthy Life |
| | Two nights and Three days of Loneliness |
| | The Value of being Discharged form a Facility, Self-reliant, and Dependent |
| | He's standing Firm and independent Beyond the Walls of Reality |

1) 서툴고 힘들었지만 추억이 있던 시설생활

(1) 어린 시절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던 시간

어릴 때 비 오는 날 집에 안 들어간다고 고집 부려서 비 맞고 마당에 서있었던 기억이 나요. (중략) 초등학교 때는 돈 흠쳐서 원장님한테 혼나고 손들고 서있었던 생각이 나고 반성문 썼어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2017년 7월).

(2) 힘들었던 학교생활

학교가기 정말 짱 나요. 언제 부터인가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특수학급인줄 알고 있었지만 친구도 없고 그래서 맨 날 학교 가면 잠만 자요(2017년 8월).

(3) 시설캠프는 새로운 경험과 또 다른 성장

제주도 수학여행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았어요. 자기 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직업얘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느낀 게 많았어요. 양육자 쌤과 사과도 하고 요즘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내년에는 베트남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살고 싶어요(2018년 8월).

(4) 함께 웃고 울어 주었던 소중한 친구들

같은 방 친구가 있는데 떡볶이 사먹고 냉면도 먹으러 가고 재미있어요. 진정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비밀이 있다고 해서 실망했어요(중략). 개는 아바나 엄마가 없거든요. 저가 아바 때문에 울었을 때 그 친구가 날 위로해줬죠(2018년 4월).

연구 참여자는 초기상담부터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해서 솔직하고 즉흥적으로 표현해 주었으며 짜증나고 귀찮아하는 정서표현들이 주로 있었다. 신뢰관계형성과 친밀감이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어린 시절 고집이 세고 양육자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힘들게 했다고 보고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시설에서의 주기적인 캠프나 수학여행은 좋은 기억과 추억이 있었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그때마다 같은 방을 쓰는 친구들과 함께 자고 웃고 싸우기도 하며 서로를 의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유에서 아동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불안감과 우울성향으로 인하여 무기력한 모습들이 일상생활에서의 불만과 공격적인 말투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상담과정에서도 언어적 표현이 산만하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보드게임진행과 퇴행놀이를 진행했으며 관심과 애정의 욕구를 표현하여 스트레스와 갈등을 해소하려는 모습이 상담과정에서 보여 졌다. 또한 모

래놀이치료를 병행하면서 또래보다 수준이 낮은 피겨와 많은 양의 피겨를 넘치게 배열하는 과정에서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설 생활이 서툰데 힘이 들었지만 생각해 보면 의지할 수 있었던 또래 친구들과 캠프 때 마다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상담자는 아동의 정서적인 존중과 수용감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상담이 회기마다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아동은 힘들고 벽찬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친밀감으로 자신을 인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수용하며 안정감을 경험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신의 모습을 찾아 가는 여정의 시기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기도 하였다.

2) 아프고 성장하고 쓸쓸한 나의 사춘기

(1)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가 저녁마다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데 말도 안 듣고 같은 방을 쓰는 아픈 동생에게 물을 끼얹고 욕을 해서 저도 너무 힘들어요. 아마 키워준 선생님이 결혼한다고 하니 화가 나서 더 그러는 것 같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 것 같아요(2017년 10월 양육자).

(2) 나를 성장시켰던 외롭고 힘든 시기들

내가 이 집에서 안 살고 다른 곳에서 살았다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해요. 이 집에 살아서 용돈도 모으고 원하면 학원이나 프로그램도 신청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하하(중략). 저가 외로움을 더 많이 타는 성격이라서 더 그래요(2019년 7월).

(3)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꼭 필요한 선생님

이번에 새로운 쌤이 왔는데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요즘은 완전 짜증나게 해요. 집이 편했는데 요즘은 쌤들 때문에 집에 가기 싫어요.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아침에 깨워 주지도 않고... 정말 학교가기 싫어요. 아휴...미치겠어요(2018년 2월).

(4) 동생들 때문에 마음 아팠던 기억

금요일에는 늦게 자고 방친구들이랑 국수해 먹고 놀았어요. 근데 우리방에 아픈 애가 있거든요. 근데 방에 XX 싸 놓고 그걸 내가 밟은 거예요. XX어후, 정말 미치겠어요. 그럴 때 마다 쌤들은 동생을 이해해 줘야지, 맨날 나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나고 힘들어요(2017년 11월).

연구 참여자는 일상생활에서 예민해 지고 신경질적인

태도로 불만을 제기하고 사춘기적인 모습이 있었으며 동생들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의 정서가 수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짜증내고 힘들어 하는 모습이 보여 지기도 하였다.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서도 상호이해적인 관계보다는 어떤 말든지 날을 세우고 예민하게 공격하는 성향이 있었다. 아동은 사춘기시기에 시설환경에서의 불편감과 양육자와의 기 싸움에서 통제적인 일상생활에 불만이 가득했다. 특히 자신을 키워준 양육자의 퇴직은 아동에게 또 다른 분리경험으로 불안한 정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심리치료는 아동의 공감적인 사고를 기본으로 따뜻하고 충분한 수용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힘든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래관계에서의 원만함과 적절한 정서표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배려와 격려하는 심리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3) 의지할 수 없는 존재

(1) 그리움, 원망, 눈물이 바다가 되었던 순간들

아빠가 온다고 전화 했었는데 바쁘다고 못 온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외출했는데 저는 못했죠. 속으로는 너무 우울했어요. 새엄마 딸도 있으니 눈치 보였나 봐요. 너무 화나서 눈이 퉁퉁 붓게 울었어요. 그래도 아빠랑 나중에 같이 살고 싶고 돈 많이 벌어서 집도 사주고 싶고 차도 사주고 싶어요(2017년 10월).

(2) 가족은 의지할 수 없는 존재

친엄마가 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네요. 짹짹하기도 하고 아, 짱나요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중략). “엄마 얼굴보고 왔어요. 많이 아파서 간호사하고 경찰하고 같이 만났는데 막 우는 거예요. ‘아파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너무 슬펐어요. 엄마 얼굴 보면 마음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복잡하고 힘들어요(2018년 10월).

(3) 삶의 무게로 떨어지는 자존감

어릴 때 아빠 보면 좋았는데 요즘은 어색하고 싫어요. 나 컸나 봐요(중략). 넘어져서 발 깎스 했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땀수도 없고 넘 불편하고 힘들어요. 다포기하고 싶어요. 쌤, 저 요리배우고 싶는데 돈이 너무 들어가요. 빨리 졸업하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2018년 12월).

(4) 갈 길은 멀지만 다시 시작해요

담임쌤이 장애인 직업체험 박람회 데너오라고 했는

데 가기 싫어요. 저를 무시해서 더 싫어요 저도 알죠. 공부 안되고 실력이 없어서 대학은 갈 수 없고 그래서 회사에 취업하려고요. 자격증 시험공부도 하고 있어요(중략). 빨리 돈 벌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생각이 많아져서 잠도 많이 못자고 그래요(2019년 1월).

내담아동은 심리치료와 상담과정을 통하여 내면에 억제된 분노감과 적개심을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차츰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 노력이 보여 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가족은 그리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는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켰으며 친부의 재혼으로 인해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였다. 몸이 아픈 친모를 만나는 상황이 있었으며 그로인해 자신의 현실, 스스로에 대한 욕구, 정서적 의사표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고 성장한 모습들이 상담과정에서 보여 지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의 존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드리고 원망하지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상담자는 이 시기에 아동을 무엇보다 다정하고 따뜻하게 포용해 줌으로서 내적인 장점과 자존감을 응원해 주며 지지해 주었다. 그 이후로 아동은 퇴소와 자립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상담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기도 하였다.

4) 기대감과 두려움의 자립과정

(1) 퇴소, 자립, 직업,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

학교에서 직업체험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고3 이잖아여 쌤, (중략). 요즘은 담임 쌤하고도 잘 지내고. 자격증도 따려고요. 졸업은 해야죠(2019년 6월).

(2) 2박 3일 외로움의 홀로서기

집에 혼자 자립하는 생활관이 있어서 2박 3일 자립했어요. 근데 너무 심심하고 외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혼자 못살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지나니까 좀 적응이 돼서 편했어요. 어제부터 네일아트하고 꽃꽂이 하고 싶어서 신청했어요(2018년 6월).

(3) 시설에서 퇴소, 자립 후 내 인생의 가치

쌤, 인생의 가치가 뭐예요? 저 퇴소하고 집에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쌤은 뭐 때문에 살아요? 궁금해요(중략). 퇴소하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근데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직은 모르지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2019년 8월).

(4) 현실의 벽을 넘어 곳곳하게 독립해요

자립하면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살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 가지는 하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데 공부 때문에 걸려요.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지겹기도 하고 빨리 자립해서 나가고 싶어요(중략). 저 취업했어요. 졸업 전에 취업해서 좋아요. 빨리 독립해서 잘 살고 싶어요.”(2019년 12월).

연구 참여자는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적성을 고려하여 직업과 진로 취업에 대해서 상담시간에 공유하고 싶어 하였다. 그로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한 언어사용과 상황판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온 기능을 유지했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아동은 퇴소와 자립을 준비하면서 책임감 있게 학교생활과 졸업을 하고 싶어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오랜 시설생활에서 찾아오는 생활준수와 제한적인 일상생활에 익숙했지만 독립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표현해 주었다. 그러므로 상담과정에는 아동의 자존감과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대처기술 상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상담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직업안내와 자립생활기술에 관한 치료적 개입과 퇴소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담이 제공되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 중심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준비 과정을 보면 아동 양육시설 일반 청소년과 달리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 준비과정은 개인적 기질과 환경적 상황으로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준비는 시작과 진행과정 또한 자립이 안전하게 성인으로 정착될 때까지 세심한 지원과 적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맞춤형 직업안내와 진로서비스 프로그램이 정착되어야 한다.

둘째, 퇴소를 앞둔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장기적 상담과 심리치료와 효과성을 보면 아동양육시설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개별심리치료 상담과정에서 심리적·사회적 변화 과정에 대한 치유적이고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담초기에는 정서적 수용감과 지지자원을 활용하여 자기표현과 효능감에 대한

자기통찰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상담 중기에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자원의 기능을 촉진하여 일상생활에 대한 상황분별력과 사회적 대처기술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그로인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안내와 진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자발적인 자립준비과정을 경험하였다. 상담마무리 과정에서는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술과 관계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성숙된 자세로 자립생활기술에 대한 폭넓은 상담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셋째, 아동양육시설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에게 양육자 선생님은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시설 경증장애 청소년에게 부모 역할 뿐 만 아니라 생활지도사로서 역량은 청소년들의 인성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로인해 무엇보다 같은 방을 사용하는 아동의 인원수를 최소로 하는 인원제한의 제도적 방침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과 개인적인 기질에 대한 제한을 두어 차별화된 일상생활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며 시설에서의 규율이 청소년들의 자발적 동기를 부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퇴소를 앞둔 경증 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전담요원의 확충과 자립기술서비스지원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제언은 첫째, 시설청소년이 퇴소하여 최소 5년 기간 내에 스스로 안정적인 자립을 완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시설퇴소 청소년이 평범한 성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성과 성향을 고려한 직업선택과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그리고 아동양육시설의 일반청소년과 경증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과의 퇴소를 앞둔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이유는 일반 청소년은 퇴소와 자립준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보다 넓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진학이든 취업준비에 대한 선택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청소년의 시설생활 경험에 대한 거부적이고 사회적인 선입견들이 경증지적장애 청소년의 자립준비처럼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경증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의 퇴소와 자립준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의 종류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적성을 고려한 직업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장기적인 생계수단으로 생활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경증지적장애를 가진 취약계층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준비와 직업훈련이 중요하며 안정적인 생계유

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이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 확보와 개인자원기술의 일대일 멘토링에 대한 관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대일 멘토링 사업은 퇴소 청소년에게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가족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애정을 경험하고 친밀한 신뢰를 경험할 수 있는 추후관리 지원서비스라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지원통합서비스와 자립수당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LH매입, 전세입대주택 임대료 지원과 함께 전문사례관리사를 통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9]. 이러한 제도는 일반 퇴소 청소년 뿐 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퇴소 청소년에게도 반드시 지원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지도가 퇴소 청소년의 적성과 성향을 고려한 자립 진로지도와 장기적인 시간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중증지적장애 청소년이나 장애를 가진 취약 청소년일수록 개별화된 맞춤 직업안내와 진로지도의 자립준비 경험이 유지되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심리적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아동양육시설 취약 계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 [1] J. E. Lee. (2018). *Mixed study on the independence of adolescents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institution*. Doctoral dissertation at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2] J. E. Lee & E. J. Jeong. (2018). The Influence of Child Care Facilities on Independent Living Technology by the Risk Factors of Youths Retired from Child Care Facilities.-*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Protective Factors*. *Social Welfare Policy*, 45(3), 1-34.
- [3] M. S. Yoon & S. E. Park. (2014).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Preparatory Experience for the Re-separation of Children's Nursing Home for the Exemption. 66(4), 133-155.
- [4] E. J. Mash. (2002). *Child Psychopathic*. Cismarpress.
- [5] National Rehabilita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case management team: *mental retardation basic process*.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6] M. Y. Kim. (2009). *A Cas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lf-assertion Technology for Children with Minor Disabilit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oul.
- [7] K. S. Kim. (2019). *The Outcome of Game Behavior Recognition Training for Controlling of Smartphone Use Time in the Adolescents with Mild Intellectual Disability*. An Essay on Master's Degree from Daegu University.
- [8] L. R. Park. (2015). *Effect of music therapy on self-esteem of adolesc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Master's thesis at General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 [9] J. E. Jang & J. S. Jeon. (2018). Early independence experience of adolescents discharged from child rearing institution.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20(2), 95-125.
- [10] H. J. Jeon. (2006). *Qualitative study on early experience of independent living of adolescents discharged from child care institution*. Master's thesis at Busan University.
- [11] Y. L. Yoo, Y. M. Yang & M. H. Park. (2015). Understanding about independence of adolescents discharged from child care institution: perspectives from life history.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and Rights*, 19(3), 509-550.
- [12] H. Noh. (2004). Direction for welfare support aimed at developing independent living ability of adolescents living in pover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1(1), 95-117.
- [13] C. R. Noh & H. R. Kim. (2001).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Independent Skills of the Children in Group Home. *Korean Society for Children's Association. 15th Annual Conference of the Child Welfare Association*. p.191.
- [14] H. O. Jung. (2018).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independent living among early discharged adolescents from residential homes*. Graduate School of Chongshin University.
- [15] J. S. Kwon. (2007). Ethnography on post-discharge life of adolescents from child care facility.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and Rights*, 11(1), 1-29.
- [16] S. E. Park. (2016).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ost-traumatic growth among adolescents discharged from child care institution*. Doctoral dissertation at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17] Y. Y. Hong. (2017). *A qualitative case study of psychological changing process of adolescents about to be discharged from child care institution*. Doctoral dissertation at General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18]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CA:sage.

- [19] M. Y. Go. (2013). *A Study on the Qualitative Case Studies*. Cheongmok Publishing House.
- [20] J. U. Choi, K. H. Lee & J. H. Yoo. (2012). Comparison of the level of mental health between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children from normal fami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19(6)*, 729-737.
- [21]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2nded.). Newbury Park, CA: Sage.
- [22] Buck, J. (1966). *The House-Tree-Person technique: Revised manual*. Los Ang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23] M. S. Shin. (2014). *Diagnosis and understanding of children through painting*. -Focusing on HPT and KFD-. hakjisa.
- [24] J. Y. Cho. (2016).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test*. Sigma Press Co., Ltd.
- [25] J. M. Bou. (2014). A Year's phrase on the symbolic meaning of Jeju's door 'Jeongnang', Focusing on sand play therapy. *Symbols and sand play therapy, Book 5(2)*, 12-13.
- [26] Y. J. Lee. (2019). *A Qualitative Study about Maternal Symbols and Mother-Child Relationship in the Sandplay Therapy Process of Children who experienced Relationship Trauma*. a doctorate from Hanyang University, Seoul.
- [27]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orientation to sociological methods. *McGraw-Hill, New York, 2012, 'Triangulation, 2*, 80-88.
- [28] S. W. Lee. (2017). *A Sing le Case Study of the Effect of Solution-focused Brief Counselling on Cyber Bullying Abused Adolescent : Self-esteem and Personal Relations*. Inh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action.
- [29]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0). *Overview of Integrated Services for Self-reliance Allowance and Housing Support for Children with End of Protection*. (<http://www.ncrc.or.kr>)

김민경(Min-Kyeong Kim)

[정회원]



- 200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석사)
- 200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 정신건강, 다문화
- E-Mail : mkm35@nsu.ac.kr

유진희(Jin-Hee Yu)

[정회원]



- 2016년 8월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상담·심리치료(문학석사)
- 2020년 1월 :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상담·심리치료(박사수료)
- 2017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부설 아동가족 상담센터 상담연구원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상담, 가사상담
- E-Mail : nature040877@naver.com